

[환영논평]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 표명, 전폭적 환영!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추진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하여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11일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고 전하며 정부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하겠다는 마음으로 총력을 다할 것을 표명했다.

특히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을 들어 ‘대한민국 고질병을 고치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뜻을 내비친 데에 이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야기된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핵심 발로로 행정수도 완성을 꼽은 것이다.

또한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인 완성을 위한 법 제도의 뒷받침도 지속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제도적 완성의 길로 접어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토의 중심인 세종과 충청이 새로운 균형발전 시대를 이끌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뜻에 적극적으로 찬동한다. 더불어 세종을 넘어 충청권이 새로운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 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동행하고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낸다.

앞으로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가속화와 관련 인프라 정비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의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모든 역량과 지혜를 결집하여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결실의 실현을 위해 힘쓸 것을 굳게 다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